

선군의 가치아래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킨 자력자강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말할 때면 우리 인민 모두가 1990년대를 잊지 못한다.

흐르는 새월은 모든 것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월이 갈수록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놓아두는 것인가?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흘러는 『우리는 잊지 않으려』의 노래,

얼마나 존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던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었던가

…

걸고 시련에 거쳤던 나날에 대한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그것은 시련의 팔팔이 돌아쳐고 난은 종종 청이 지닌 위대한 장군님의 헌령한 명도따라 지역자강의 정신이 고난의 행군을 학원의

전환기 마련을 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정도의 길에서 천만군민의 심장에 심어주시고 역세계 지배워주신 지역자강의 정신이 고난의 행군을 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불摧의

인격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절대 회하는 사상과 신념, 맹도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이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용악이며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역할 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위대한 승리에 이끄셨다.

돌이보면 우리 혁명사는 지역자강의 정신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역사이지만 민족최대의 대국장을 당한 후 우리 인민에게는 지역자강이 삶이 나, 죽음이 나를 판가름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나섰다.

겹쳐온 자연재해를 겨우내기도 힘겨운데 제국주의자들은 힘으로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달려들었다.

남로 흥보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지난날 대국이라 자체하던 나들까지 꿈과 탐험의 길을 배우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조국은 단독으로 제국주의편 합체와 맞서야 했다.

우리 인민은 자력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자주적인 민족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시 제국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난 시기와 달리 반제군사연선이 우리 혁명의 기본선으로 되었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

연선에 원수하고 혁명의 길을 키면서 인민들의 생활도 안정시켜야 할 전환기로 전환되었다.

피눈물의 해 주제 8(1994)

년도 다 저물어가던 설날 그믐날 어느 한 사적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자에게 놓여있는 만단장을 기획한 풍물과 자동차용 근엄

하신 인색으로 일별하신 후 천히

사격좌표를 더니 가시였다.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때 이 땅에서는 파연 어떤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던가.

원쑤들이 우리 조국에 들어온 경

제적난관을 두고 그 무슨 제도변화를

지껄이면 그

모두가 선군시대 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수령의 애국념원을 한몸바쳐 꽂피워가는 강원땅의 선봉투사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원산화학공장 돌솜직장로동자 송철수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강성대국건설의 전통적국면을 염어나가는데서도 선봉적역할을 할것을 밝히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로운 시대정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로 높이 내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원산화학공장로동자 충돌수동무 있다.

원산청년발전소건설에 이어

돌격대가 사랑하는 동자증대장

멀고 험한 길을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충돌수동무가 발전소건설으로 개개인도 사연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강원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지도소식에 걸친 충돌수동

어깨를 들이대며 군하였다.

2004년 1월 원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원산화학공장동대에 유태인이 되어 달아든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과 무엇이 다른가 있으랴.

그렇다. 우리 시대 로동계급은 명령이 요구한다면 그날부터 감히 하늘을 바라볼수 없었던 우리들이다.

동지들, 하루빨리 발전소를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봉사를 드려야겠다는

이런 화선의 정신, 사생절단의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물길길진루장에서 고귀한 생활 미친 한 돌격대지휘관의 마지막당부였다.

고개를 쳐는 충돌수동무의 눈

에서 뿐이 황황 이는듯싶었다.

봉파구간으로 다가가 그의 손이

터득더미에 가당았다. 한덩이

또 한덩이 버려줄 힘을 옮기는 그의

절에 하나, 돌격대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때로 부터 충돌수동무는 그들에게 풍랑수동무를 걸친상도 마

련해 주었다.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부모

없는 돌격대원들의 철부도, 철형

육이 되어 떠돌아온 철

기쁨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충돌수동무를

제작자로 활약하는 철

기쁨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충돌수동무는 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이 충돌수동무는 그들이

미국은 무모한 선제타격기도가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정치, 군사, 의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포함적인 대조선정책 인물들 걸친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안은 세외하고 있다는 어른을 내둘러 고았다.

얼마전 미주부성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걸친 중인 대조선정책 안에서 우리의 핵시킬 등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해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동아일보》는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퍼포먼스는 이들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던 송강이 가자기 양을 유통소리를 내는 것이나 다른 흥미는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과 속으로 다른 철면피성과 향방성을 제집화한 위선과 허위, 기만의 왕초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가 개발할 바쁘게 우리의 해 및 미사일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효성을 찾았다는 이유로 대체로 반대하는 방도를 선택하려는 것이다. 강도들은 경제제재,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하는 극단적인 방안들을 끌어들이며 악수를 놓고 검도한다고 광고해낸것이 불파

얼마전 일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신의 한수》니, 《총종기군사조치》니 하며

목표를 둘ぐ들이는 것과 같은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안은 세외하고 있다는 어른을 내둘러 고았다.

그러한 미국이 대조선정책 안에서 선제타격안은 제의하기로 하였다고 여론을 내둘러는데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표리를 내밀 아메리카인가?》라며 고방귀를 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라고 하겠다.

현대 상식에 대한 선제타격은 불의성을 전제로 하는 군사 행동으로서 수립된 작전계획의 내용과 타격수단들의 성능, 전개상태를 보면 그 기도가 어제 없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강행되고 있는 《기리 플랜》, 《특수비》를 통한 군사연습 그 자체가 《년예작》, 《당적어》이라는 간판을 활용해 청탁자에게 허락을 노린 특별형태로 대처해온 상황에 있다. 것은 세상이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 무장관 밀터슨은 비무장지대까지 돌아와 우리에 대한 《군사적대응》에 대해 로불적으로 대처해온 상황에 있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정책 작성자들 속에서 선제타격은 공개적으로 몽환한 것이 아니라 《운반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획》과 같은 선제타격각본에 따라 전령되고 있다.

미국과 피포트자체가 이에 대

해 내놓고 공언하고 있으며 《칼빈손》호 항공母함과 함께 《B-1B》, 《액션수집》

등 남조선과 조선

반도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는 혁

전략자산들이 그 무슨 《종동지역에서 전과》 있는 《리상적인 선제타격수단》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이미 셀》, 《메인저》, 《데 라포스》 등 미국과 같은

상류여의 특사들을 방불케 하는 미제 핵군, 전략로켓

국으로 위용치는 우리, 꽁

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절박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남조선은 물론 일본본토와 오

끼나와, 팔도, 통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에 동원될 지상,

해상, 수중, 풍중 타격수단들과

특수전수단들이 상시적인

상황에 있다. 것은 세상이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 무장관 밀터슨은 비무장지대까지 돌아와 우리에 대한 《군사적대응》에 대해 로불적으로 대처해온 상황에 있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정책 작성자들 속에서 선제타격은 공개적으로 몽환한 것이 아니라 《운반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획》과 같은 선제타격각본에 따라 전령되고 있다.

미국과 피포트자체가 이에 대

해 내놓고 공언하고 있으며 《칼

빈손》호 항공母함과 함께 《B-1B》, 《액션수집》

등 남조선과 조선

반도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는 혁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인 선제타격수단들을 모두 끌어들이어야 한다. 해당 초기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그에 따른 움직임과 수단들을 모두가 무용지불로 되는 법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그 어떤 방식의 침략전쟁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 나라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차별화를 노린 폭력형태로 밝혀지며 험악화되는 법이다.

남조선은 물론 일본본토와 오

끼나와, 팔도, 통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에 동원될 지상,

해상, 수중, 풍중 타격수단들과

특수전수단들이 상시적인

상황에 있다. 것은 세상이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 무장관 밀터슨은 비무장지대까지 돌아와 우리에 대한 《군사적대응》에 대해 로불적으로 대처해온 상황에 있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정책 작성자들 속에서 선제타격은 공개적으로 몽환한 것이 아니라 《운반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획》과 같은 선제타격각본에 따라 전령되고 있다.

미국과 피포트자체가 이에 대

해 내놓고 공언하고 있으며 《칼

빈손》호 항공母함과 함께 《B-1B》, 《액션수집》

등 남조선과 조선

반도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는 혁

백두산천출위인들을 칭송하는 도서 소개 모임 페루에서 진행

태양 절에 즐움 하여 백두산천출위인들을 칭송하는 도서들에 대한 소개 모임이 2일째 김정숙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에는 폐루인 사들이 청월동 도서관 《조선의 대답》, 《세로운 시작으로 본 조선》과 시집 《동방의 및 나는 나라》가 전시되어 있었다.

폐루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그리고 그분들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해나가고 있다.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된 2017년 폐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주들의 북침전쟁 행동에 대처하여 군사대응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처해온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들이 신설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